

개인의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역량과 기관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¹⁾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s Intention to Provide MyData: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Type

박동근 (Dong Keun Park)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²⁾
양성병 (Sung-Byung Yang) 경희대학교³⁾
윤상혁 (Sang-Hyeak Yoon) 한국기술교육대학교⁴⁾

< 국문초록 >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이슈가 함께 주목받으면서, 마이데이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동의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결합, 분석하여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초기 마이데이터 사업은 민간기업,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지만, 최근에는 공공기관도 마이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을 위한 개인의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는 마이데이터의 개인혜택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공공혜택 및 지각된 위험 측면 요인이 모두 함께 고려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을 통해 도출한 후, 그 영향 메커니즘을 살펴봄과 동시에, 개인역량과 수집기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추가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맥락에서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민간 및 공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지각된 가치, 개인역량, 기관유형, 프라이버시 계산모형

1) 본 논문은 박동근의 2021년도 석사학위 논문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개인역량과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8103855).

2) 제1저자, ted1230@naver.com

3) 제2저자, sbyang@khu.ac.kr

4) 교신저자, yoonsh@koreatech.ac.kr

1. 서론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개인이 생성해내는 데이터도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대규모로 수집 및 저장되고 있다(봉기환, 2020). 전 세계 데이터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64.2 제타바이트로(Statista, 2022), 이 중 개인이 생성해내는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로 추정된다(Gartner, 2020). 데이터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도 해마다 증가하여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데이터 관련 기업이 2010년 2개에서 2020년 7개로 증가하는 등(KDB 미래전략연구소, 2021), 미래산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동시에 개인정보관리 이슈도 주목받고 있다(김은찬 등, 2021). 최근에는 개인정보유출과 보안위험을 우려하는 개인과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이데이터(MyData)’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백한중 등, 2019).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동의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를 개방 및 활용하는 개념을 의미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이는 기업 관점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넘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개념이다(박주석, 2018).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법) 등 소위 ‘데이터3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시장이 열리고 있다(서울경제TV, 2022). 법 시행과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기업이 수집한 내부데이터와 별개로 고객데이터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활

용한 개인 맞춤 서비스 또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서울경제TV, 2022). 한편, 고객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바탕으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KDB 미래전략연구소, 2021).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의 대표적인 분야로 민간 금융 분야를 들 수 있는데, 고객이 금융정보 관련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여러 곳에 분산된 자산, 신용 등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배재권, 2021).

한편, 공공기관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김동성, 2017).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 및, 역학조사를 위해 232만 명의 마이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한 바 있으며(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민원 처리, 여권신청 서비스, 임대주택 청약 신청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서울경제TV, 2022). 하지만, 민간 및 공공기관 등 공급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에 비해,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2022년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마이데이터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5.8%는 마이데이터 개념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이터넷, 2022). 특히, 이 조사에 의하면, 정보통신 기술에 친숙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37.3%가 마이데이터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는데(데이터넷, 2022), 이는 개인역량에 따라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태도, 행동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56.1%가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우선순위로 뽑았고, 향후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나 혜택 다양화(32.7%)’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다양화

(18.8%)를 꼽았다(데이터넷, 2022). 즉, 마이데이터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마이데이터(개인 행동 및 신체정보) 제공이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 제공에 따른 위험 및 혜택 요인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이 성장하면서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한 제도(예: 김은찬 등, 2021; 배재권, 2021; 최정민, 조영은, 2020), 보안위험(예: 김영희 등, 2019; 송미정, 김인석, 2019), 프라이버시(예: 박민정, 채상미, 2017; 박준희, 2020; 백한중 등, 2019; 정해진, 이진혁, 2022)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 등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공의도 관련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존재하는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개인이 인지하는 혜택과 위험관점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으나(예: Dinev & Hart, 2006; Trepte et al., 2020), 개인이 공공기관에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공자 개인의 혜택과 위험 속성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의 혜택 유형을 공공의 관점으로 확장하여 개인혜택과 공공혜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마이데이터 활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민간기관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선행연구 결과를 보완 및 확장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지각된 혜택과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정보수집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더 나아가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이데이터 제공자가 개인정보(행동정보 및 신체정보)를 제공할 때 지각하는 가치와

제공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도출한 후, 그 영향력을 실증함과 동시에 개인역량과 수집 기관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 Laufer and Wolfe(1977)가 제시한 프라이버시 계산모형(privacy calculus model)을 기반으로 개인이 마이데이터를 제공할 때 지각하는 혜택과 위험 관련 요인을 각각 도출하고, (2) 도출된 요인이 마이데이터 제공자의 지각하는 가치와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 후, (3) 이러한 영향 메커니즘이 개인역량(마이데이터 통제역량, 마이데이터 지식정도)과 기관유형(민간기관 vs. 공공기관)에 따라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 제공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자신의 동의로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개념이다(오현택, 양진홍, 2020). 여기서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데(최인호, 정세훈, 2019),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한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판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의료, 통신, 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데이터 주권 활용이 가능하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기업(활용자) 중심의 개인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개인(제공자) 중심으로 이동함으로써, 데이터 생태계의 양적, 질적 확대와 혁신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

히, 국내에서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개인 주도형 본인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도 제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뉴딜정책 기조에 맞춰 마이데이터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박효주, 양진홍, 2020).

개인정보는 개별로 수집되었을 때는 가치가 낮지만, 한곳에 모이면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일반적으로 행동정보와 신체정보로 구분될 수 있다(Ioannou et al., 2020). 행동정보는 개인의 행동 패턴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취미, 선호도, 실시간 위치, 활동센서 정보, 검색기록, 지불내역, 금융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하며, 신체정보는 생체정보, 의료, 건강정보 등 지문, 얼굴, 홍채, 걸음걸이, 목소리, 의료 등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를 포함한다(Ioannou et al., 2020).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 공개는 서로 다른 수준의 보안 위협과 관련되어 있으므로(Malhotra et al., 2004), 행동정보와 신체정보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위협 수준과 민감도가 다를 수 있어 이 둘을 분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위협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중, 박민정, 채상미(2017)는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의 효율성, 프라이버시 통제 능력 상실, 오프라인 감시 위협, 프라이버시 규제의 필요성이 데이터 감시 위협의 지각 정도를 거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또한, 정해진, 이진혁(2022)은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인터넷 활용능력, 프라이버시 위협,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염려가 프라이버시 냉소주의를 거쳐 프라이버시 보호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으로, 마이데이터 산업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표 2> 참조), 대부분의 연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위협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마이데이터 관련 연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때문에 공유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나, 공유의도에 관한 실증 연구가 부족했다. 둘째, 개

<표 1>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위협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연구주제	이론	선행요인	결과요인
김영희 등 (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개인정보 위협 기반의 트렌드 분석 연구	-	정보통신-마케팅불법활용, 정보통신-수집/활용미동의, 정보통신-안전성확보조치 등 총 15개 요인	-
박민정, 채상미 (2017)	빅데이터 환경 형성에 따른 데이터 감시 위협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호동기이론	온라인 서비스의 효율성, 프라이버시 통제 능력 상실, 오프라인 감시 위협, 프라이버시 규제의 필요성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
박준희 (2020)	범죄 빅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과 프라이버시 위협에 관한 연구	수정된 계획행동이론	프라이버시 염려	범죄 빅데이터 참여여부
백한중 등 (2019)	지각된 위협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보안 위협, 기능상 위협, 재정적 위협, 시간 손실 위협, 프라이버시 위협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용 의도
정해진, 이진혁 (2022)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태도와 보호 의도에 관한 연구	-	인터넷활용능력, 프라이버시 냉소주의, 위협인식	프라이버시 보호의도

〈표 2〉 마이데이터 산업관련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연구주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
김은찬 등 (2021)	‘데이터3법’ 개정안에 따른 국내 금융 및 데이터 산업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 투명성 보장, (2)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 및 보완, (3) 명확한 데이터 처리 방법과 영역 규정, (4) 데이터 시장 경쟁체제 보장 및 제도화, (5) 데이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6) 보안시스템의 확립 및 강화, (7) 데이터 이관에 대한 협력 시스템 강화
배재권 (2021)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	(1) 마이데이터 관련 공공플랫폼 구축 필요, (2) 제공 데이터 정보범위의 구체적 정의, (3)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위험 해결, (4) 마이데이터 품질 및 호환 문제 해결, (5)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최정민, 조영은 (2020)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	(1) 개인정보 자기관리 체계 구축 및 구체적 동의권 보장, (2) 마이데이터 대상 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3)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의 종합적인 법체계 정비

인은 마이데이터 수집 대상 기관에 따라 공유의도가 변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간, 공공기관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 데이터를 제공할 때 예상되는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을 구별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가 없었다. 셋째, 개인의 정보공유 의도 영향 메커니즘은 개인역량(통제역량 및 지식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공은 사회 전체 구성원의 복리 속성이 있으므로 개인의 이득과 다른 속성으로 구분되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을 기반으로 혜택 유형을 개인혜택과 공공혜택으로 나눈 후, 마이데이터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혜택과 위험 요인이 지각된 가치 및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나아가 개인역량(마이데이터 통제역량, 마이데이터 지식정도)과 기관 유형(민간기관 vs. 공공기관)에 따른 조절효과를 추가 검증해 보고자 한다.

2.2. 프라이버시 계산모형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잠재적

비용과 혜택을 계산하여 프라이버시 관련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이론 모형으로, 타인과의 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상과 위험을 식별한 후 보상 쪽이 큰 경우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사회적 교환이론(Homans, 1961)과 인간은 긍정적인 결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행동한다는 기대이론(Vroom, 1964)을 프라이버시 관련 환경에 접목하여 개발되었다(Laufer & Wolfe, 1997). 이 모형에 따르면, ‘지각된 혜택’과 프라이버시 관련 ‘지각된 위험’은 ‘지각된 가치’에 동시에 영향을 주고, ‘지각된 가치’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동(의도)과 같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개인은 프라이버시 관련 결정을 내릴 특정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득을 위해 일정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하게 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에 의하면, 지각된 혜택이 프라이버시 위험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지각된 혜택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대가로 기대하는 이익을 뜻하며, 지각된 위험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상실이나 보안 관련 지각 위험을 의미한다(Trepte et al., 2020).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개인의 행동의도와 관련된 연구, 특히, 온라인(예: Gómez-Barroso et al., 2018; Mohammed & Tejay, 2021; Trepte et al., 2020),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앱(예: 소현정, 광기영, 2021; Guo et al., 2020) 환경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편익 분석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는 공공혜택 또는 공익이 여러 가치가 충돌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강필두, 최인수, 2019), 지각되는 혜택을 개인의 혜택 관점에 한정하여 분석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의 혜택을 공공의 관점으로 확장하여 개인혜택, 공공혜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역량 및 기관유형의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을 개인의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연구 맥락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2.3. 선행변수: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

지각된 혜택은 개인이 기대하는 상황별 이득, 즉, 특정한 제품 및 서비스 경험에 대한 개인의 평가 및 사용 후 얻은(혹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점 등을 의미한다(Gutman, 1982). 따라서, 개인의 지각된 혜택이 높을수록 대상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높아지고, 불안이나 불쾌 등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Zeithaml, 1988).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혜택을 개인혜택과 공공혜택으로 구분하여, 각각 ‘마이데이터 제공 대가로 기대하는 개인의 이익 정도’와 ‘마이데이터 제공 대가로 기대하는 공공의 이익 정도’로 정의하였다.

한편, 지각된 위험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 손실의 가능성(이한석, 2016), 즉,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 결과 등 불확실성에 대해 사용자가 느끼는 위험을 의미한다(Dowling & Staelin, 1994). 따라서, 개인은 지각된 위험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하게 되고 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

인다(김동태, 2013). 개인정보 제공 맥락에서 위험은 ‘프라이버시 위험’과 ‘보안위험’으로 나뉘게 된다. 먼저, 프라이버시 위험은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제공자의 사전 동의 없이 기존 목적 외 개인정보가 사용되지 않을가에 관한 우려로(Hann et al., 200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 및 걱정의 정도를 측정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종기, 김상희, 2012). 프라이버시 위험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특정하는 개인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와 개인의 성향, 행동 정보, 위치 등의 개인비식별정보(personally non-identifiable information)가 유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등의 이슈를 포함한다(이환수 등, 2013). 특히, 선행연구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위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Forsythe et al., 2006). 한편, 보안위험은 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위험 인지 정도이며(류은정, 2002), 비용이 발생하거나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가능성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위험인 재무적 위험(financial risk)을 의미한다(이은의, 김성진, 2014). 금융 관련 마이데이터 제공시, 신용카드 및 계좌정보 유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금액 청구 등 금전적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안위험을 마이데이터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위험인지 정도로 정의하였다.

2.4. 매개 및 종속변수: 지각된 가치와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지각된 가치는 어떤 행동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혜택 및 이득의 정도와 그 반대 개념인 잠재적인 손실 정도의 상충관계를 의미한다(Dinev & Hart, 2006). 지각된 가치는 다면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는 사람마다 지각된 혜택과 위협을 여러모로 고려하며 주관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Brown & Venkatesh, 2005). 즉, 지각된 가치는 지각된 혜택과 위협을 비교하여 대상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를 마이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인지하는 가치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한편, 개인의 의사결정 내용 중 하나인 공유의도는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Ioannou et al.,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마이데이터 제공의도를 개인의 마이데이터를 제공(공유)하려는 의도의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행동정보와 신체정보로 각각 구분하였다(이종섭 등, 2022). 여기서 행동정보 공유의도는 실시간 위치, 활동센서, 검색 기록, 금융 관련 정보 등 개인의 행동 패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도 정도를 의미하며, 신체정보 공유의도는 진료정보, 지문/얼굴/목소리 정보, 의료정보 등 개인의 신체정보 및 의료,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도 정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가 행동정보 공유의도와 신체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실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응답자가 인지하는 공유 정보에 대한 민감도인 민감도를 행동정보 공유 민감도와 신체정보 공유 민감도로 나누어 통제변수로 각각 설정하였다.

2.5. 조절변수: 개인역량과 기관유형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자신의 동의하에 제삼자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를 이용,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이종섭 등, 2022). 따라서, 개인의 역량은 마이데이터 제공시 지각할 수 있는 혜택과 위협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메커니즘을 조절

하는 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역량을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마이데이터 통제역량과 마이데이터 지식정도로 각각 구분하였다. 여기서 마이데이터 통제역량은 마이데이터의 흐름, 공개 여부, 사용 등 소비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윤수영, 여정성, 2018), 마이데이터 지식정도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정도와 개인정보의 온라인 수집 및 사용에 관련된 정부와 수집기관에서 적용하는 정책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Lwin et al.,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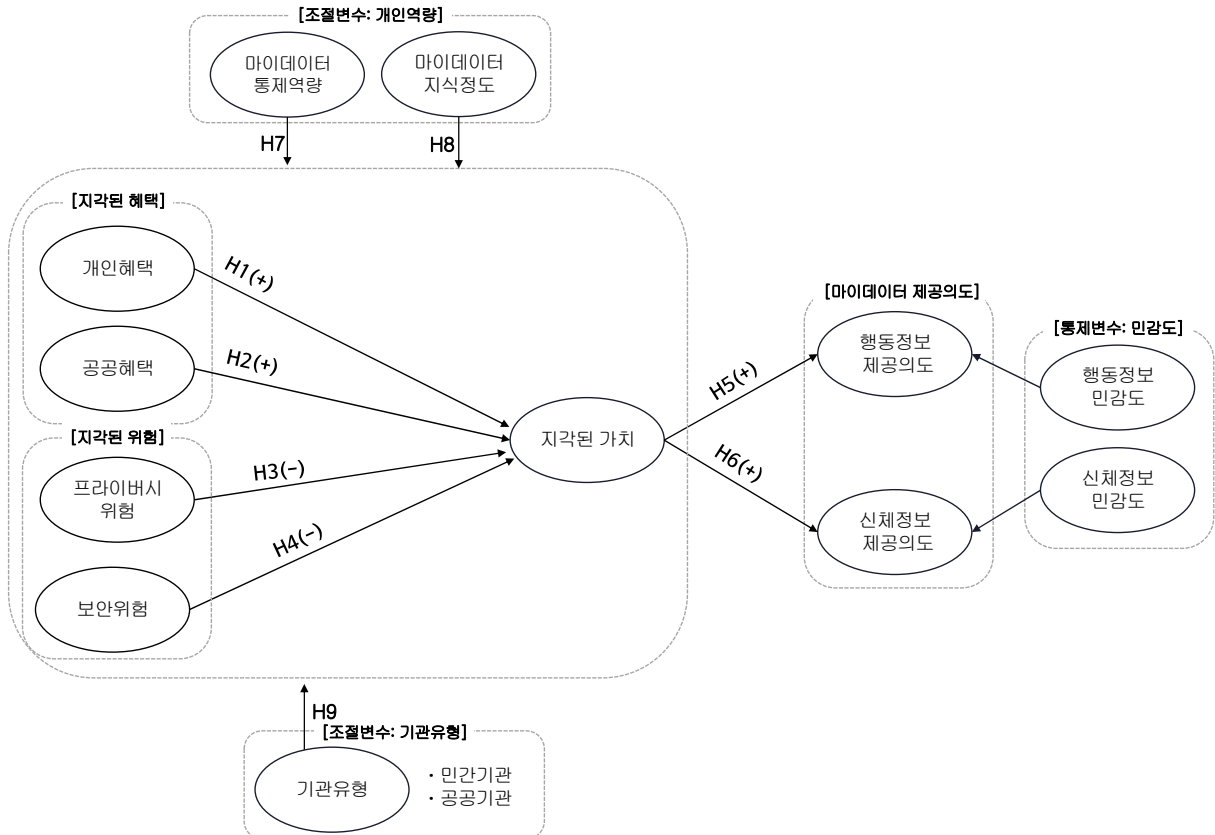
본 연구의 또 다른 조절변수인 기관유형은 마이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의 유형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출연·출자,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의료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대학병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금융 분야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기업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원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민간기관은 마이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 유형으로서 민간기업, 민간기관으로 정의하며, 의료분야에서는 일반병원, 개인병원, 금융분야에는 은행(예: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카드사(예: 삼성카드, 현대카드), 금융투자회사(예: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대기업(예: 네이버, 카카오, SK그룹, KT, 삼성그룹 등)과 스타트업(예: 직방, 우버, 야놀자 등)과 같은 사기업도 민간기관에 포함된다.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은 설립 취지와 목표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민간기관의 목표는 해당 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공기관은 공적인 이익(공익)을 우선시한다. 김현희,

박광동(2018)은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목표는 공익이며, 공익만이 공공기관의 활동 및 권한의 정당성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공공기관 중 민간기업과 같이 기업성격을 강조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성과와 공익이 상충할 경우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관의 유형에 따라 각 기관이 우선시하는 혜택의 종류가 달라 개인이 인식하는 혜택도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관유형을 조절변수로 채택하여 마이데이터 제공시 개인이 지각할 수 있는 혜택과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모형 및 가설수립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계산모형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지각된 혜택과 위험이 지각된 가치를 거쳐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개인역량(마이데이터 통제역량, 마이데이터 지식정도)과 기관유형(민간기관 vs. 공공기관)에 따른 조절효과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총 아홉 개의 가설로 구성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 절에서 도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을 기반으로 선행연구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각된 혜택을 개인혜택 및 공공혜택으로, 지각된 위험은 프라이버시 위험 및 보안위험으로 각각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이은지 등(2021)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문한 외식 업장에서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지각된 혜택(예: 개인의 건강, 코로나 전파방지 등)은 개인정보 공개 관련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마이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용자 맥락에 적용한다면, 개인이 마이데이터 제공을 통해 기대하는 개인혜택(예: 개인 맞춤 정보, 추가 서비스 등)과 공공혜택(예: 마이데이터 제공을 통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공공공익가치 창출)의 정도가 크다고 인지할수록, 마이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높이 지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마이데이터 제공으로 인한 개인혜택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마이데이터 제공으로 인한 공공혜택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제공시 개인이 지각하는 위험요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위험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계좌정보 등의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을 의미하는 보안위험을 포함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지된 위험은 사용자가 인식하는 가치와 사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유정아, 조창환, 2022). 따라서, 개인이 마이데이터 제공을 통해 예상하는 프라이버시 위험과 보안 위험이 크다고 인지할수록, 마이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더 낮게 지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마이데이터 제공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위험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마이데이터 제공으로 인한 보안위험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병화(2022)는 모바일 쇼핑 환경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가치가 클수록 모바일 쇼핑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한 바 있다. 또한, Ioannou et al. (2020)은 온라인 환경에서 여행자들이 여행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유형(신체정보 vs. 행동정보)에 따라 공유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마이데이터 이용 맥락에서도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혜택이 위험보다 크게 인지될 경우, 마이데이터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를 행동정보 제공의도와 신체정보 제공의도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독립적인 가설을 각각 설정하였다.

H5: 지각된 가치는 행동정보 제공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지각된 가치는 신체정보 제공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이 인지하는 지각된 혜택과 위험은 정량적 혹은 객관적 개념이 아닌 주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진 역량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지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양병화,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역량 및 이해(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마이데이터 제공시 인지되는 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강화되는 반면, 인지되는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7a: 마이데이터 통제역량은 개인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 H7b: 마이데이터 통제역량은 공공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 H7c: 마이데이터 통제역량은 프라이버시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약화할 것이다.
- H7d: 마이데이터 통제역량은 보안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약화할 것이다.
- H8a: 마이데이터 지식정도는 개인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 H8b: 마이데이터 지식정도는 공공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 H8c: 마이데이터 지식정도는 프라이버시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약화할 것이다.
- H8d: 마이데이터 지식정도는 보안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약화할 것이다.

기관유형(민간기관 vs. 공공기관)에 따라 개인이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의 종류, 권한, 제공 정도, 활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이기호, 2021). 또한, 기관에 따라 우선시하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민간기관은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기업성과보다 우선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혜택과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메커니즘이 기관유형(민간기관 vs. 공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9a: 지각된 개인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유형(민간기관 vs. 공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9b: 지각된 공공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유형(민간기관 vs. 공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9c: 프라이버시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유형(민간기관 vs. 공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9d: 보안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유형(민간기관 vs. 공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가설 및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마이데이터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국내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Google Form을 통해 리커트(likert) 7점 척도로 개발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앞서, 3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측정문항을 보완 및 수정함으로써 설문문항에 대한 표면타당성(face validity)을 확보하였다. 본 설문은 2021년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답변 중 마이데이터 제공 경험이 없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후, 총 504부의 응답(공공기관 255부, 민간기관 249부)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관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설문표본을 별도로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각 기관유형별 수집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특성은 <표 3>과 같다.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측정문항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도출하였으며, 개인의 마이데이터 제공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측정항목은 개인혜택 4문항, 공공혜택 4문항, 프라이버시 위험 3문항, 보안위험 4문항, 지각된 가치 3문항, 마이데이터 통제역량 4문항, 마이데이터 지식정도 4문항, 행동정보 공유의도 4문항, 신체정보 공유의도 4문항, 행동정보 민감도 4문항, 신체정보 민감도 4문항 등 총 42개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참고문헌은 <표 4>와 같으며, 구체적인 측정항목들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공공기관(<i>n</i> =255)		민간기관(<i>n</i> =24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29	50.6%	125	50.2%
	여자	126	49.4%	124	49.8%
나이	20대	57	22.4%	51	20.5%
	30대	62	24.3%	54	21.7%
	40대	60	23.5%	57	22.9%
	50대	49	19.2%	65	26.1%
	60대 이상	27	10.6%	22	8.8%
직업	학생	28	11.0%	16	6.4%
	회사원	92	36.1%	100	40.2%
	자영업	52	20.4%	58	23.3%
	공무원	15	5.9%	18	7.2%
	기타	68	26.7%	57	22.9%
최근 1년 이내 마이데이터 제공 횟수	0회	34	13.3%	39	15.7%
	1회 이상~4회 미만	55	21.6%	45	18.1%
	4회 이상~7회 미만	91	35.7%	75	30.1%
	7회 이상~10회 미만	42	16.5%	43	17.3%
	10회 이상	20	7.8%	34	13.7%
	기타	13	5.0%	13	5.0%

〈표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문헌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관련문헌
지각된 혜택	개인혜택	마이데이터 제공 대가로 기대하는 개인의 이익 관련 지각 정도	하혜림, 정유경 (2017)
	공공혜택	마이데이터 제공 대가로 기대하는 공공의 이익 관련 지각 정도	직접 개발
지각된 위험	프라이버시 위험	마이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제공자의 사전 동의 없이 기존 목적 외 정보가 사용될 우려 관련 지각 정도	이애리 등 (2016)
	보안위험	마이데이터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위험 지각 정도	
지각된 가치		마이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종합적으로 인지하는 가치의 정도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 동시 고려)	Dinev and Hart (2006)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행동정보 공유의도	개인의 행동 패턴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공 의도의 정도	Ioannou et al. (2020)
	신체정보 공유의도	개인의 생체정보 및 의료, 건강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공 의도의 정도	
민감도	행동정보 민감도	행동정보 마이데이터에 대한 민감 정도	
	신체정보 민감도	신체정보 마이데이터에 대한 민감 정도	
개인역량	마이데이터 통제역량	마이데이터의 흐름, 공개 여부, 사용 등 소비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지하는 정도	윤수영, 여정성 (2018)
	마이데이터 지식정도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정도와 개인정보의 온라인 수집 및 사용에 관련된 정부와 수집기관에서 적용하는 정책 관련 지식 정도	Lwin et al. (2007)

5. 연구결과

5.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22(SPSS 22)와 SmartPLS 3.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설검증에 앞서, <표 5>와 같이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 및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검증을 수행하였다. 신뢰도에 대한

검증은 Cronbach's Alpha 값과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값을 측정함으로써 이뤄졌는데,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및 합성신뢰도(CR) 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확인되어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Nunnally & Bernstein, 1994).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변수 및 측정문항의 집중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모두 기준치인 0.5보다 높았으며(Fornell & Larcker, 1981),

<표 5>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요인적재량	Cronbach's Alpha	합성신뢰도	평균분산추출
개인혜택	IB	0.963, 0.975, 0.974, 0.935	0.965	0.975	0.906
공공혜택	PB	0.971, 0.976, 0.975, 0.950	0.967	0.976	0.911
프라이버시위험	PR	0.834, 0.885, 0.880	0.926	0.953	0.871
보안위험	SR	0.894, 0.927, 0.954, 0.910	0.938	0.957	0.849
지각된 가치	PV	0.958, 0.945, 0.959	0.949	0.968	0.910
마이데이터 통제역량	CT	0.702, 0.915, 0.892, 0.881	0.872	0.913	0.725
마이데이터 지식정도	KL	0.904, 0.927, 0.933, 0.915	0.939	0.956	0.846
행동정보 공유의도	BI	0.963, 0.975, 0.974, 0.935	0.973	0.980	0.925
신체정보 공유의도	PI	0.971, 0.976, 0.975, 0.950	0.977	0.983	0.937
행동정보 민감도	BS	0.963, 0.975, 0.974, 0.935	0.973	0.980	0.925
신체정보 민감도	PS	0.971, 0.976, 0.975, 0.950	0.977	0.983	0.937

<표 6>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IB	PB	PR	SR	PV	CT	KL	BI	PI	BS	PS
IB	0.952										
PB	0.786	0.949									
PR	-0.313	-0.281	0.921								
SR	-0.283	-0.354	0.793	0.919							
PV	0.825	0.757	-0.321	-0.307	0.948						
CT	0.348	0.33	-0.196	-0.159	0.369	0.852					
KL	0.361	0.319	-0.141	-0.049	0.416	0.733	0.920				
BI	0.642	0.624	-0.167	-0.204	0.682	0.336	0.345	0.953			
PI	0.584	0.590	-0.065	-0.043	0.671	0.336	0.374	0.733	0.963		
BS	-0.144	-0.114	0.316	0.282	-0.163	0.04	0.03	-0.107	-0.156	0.864	
PS	-0.074	-0.065	0.309	0.237	-0.121	0.047	-0.027	-0.044	-0.152	-0.107	0.921

주: 대각선 값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을 의미함

모든 측정문항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또한 기준치인 0.6 이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Bagozzi et al., 1991). 다음으로,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검증을 위해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근 값과 관련 상관관계수들을 비교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각 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관련 상관관계수 값들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상관관계 분석결과, 일부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아(예: 개인혜택-지각된가치, 0.825)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시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권장되고 있는 Heterotrait-Monotrait (HTMT) 상관관계 비율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Henseler et al., 2015). HTMT 상관관계 비율 검증은 연구자들이 모델구조나 표본 수 등을 고려하여 검정 기준을 결정하기를 권하고 있으므로(Henseler et al., 2015), 기존 연구를 참고해 본 연구의 기준점을 0.90으로 설정하였다(Gold et al., 2001). 검증결과는 <표 7>과 같으며, 모든 HTMT 비율 값이 0.90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7> Heterotrait-Monotrait 상관관계 비율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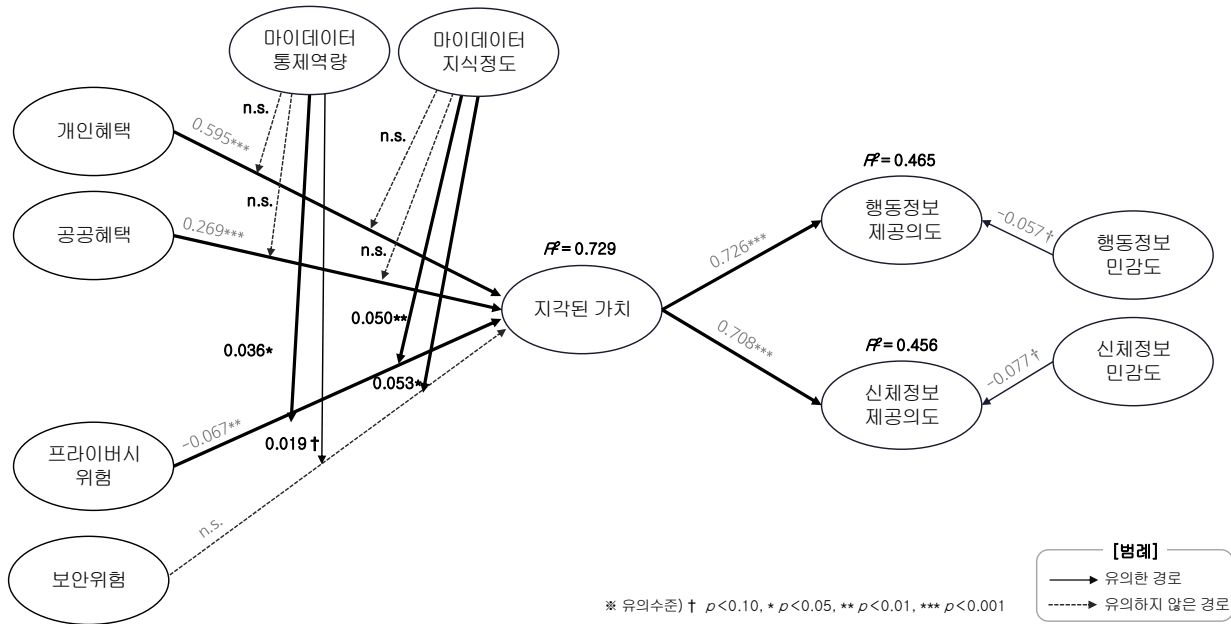
변수	IB	PB	PR	SR	PV	CT	KL	BI	PI	BS	PS
IB											
PB	0.843										
PR	0.332	0.298									
SR	0.296	0.372	0.838								
PV	0.873	0.794	0.344	0.324							
CT	0.374	0.35	0.202	0.165	0.398						
KL	0.378	0.334	0.153	0.061	0.441	0.816					
BI	0.666	0.646	0.177	0.214	0.714	0.361	0.361				
PI	0.602	0.608	0.068	0.044	0.7	0.391	0.755	0.755			
BS	0.147	0.116	0.331	0.291	0.168	0.036	0.109	0.109	0.116		
PS	0.132	0.121	0.318	0.282	0.187	0.060	0.419	0.137	0.203	0.862	

5.2. 분석결과

5.2.1.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총 9개의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우선, 개인혜택과 공공혜택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H1, H2 채택), 프라이버시 위험, 보안위험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설과 달리 보안위험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H3 채택, H4 기각). 한편, 지각된 가치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행동정보 제공의도, 신체 정보 제공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5, H6 채택).

다음으로, 지각된 혜택과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역량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SmartPLS의 표준화(standardized) 설정, 이 단계 분석방법(two stage)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마이데이터 통제역량, 마이데이터 지식정도 모두 지각된 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정(+)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H7a, H7b, H8a, H8b 기각), 지각된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유의하게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7c, H7d, H8c, H8d



〈그림 2〉 연구가설 검증 결과

〈표 8〉 기관유형 간 비교분석 결과

가설	구분	공공기관(<i>n</i> =255)	민간기관(<i>n</i> =249)	채택 여부
H9a (개인혜택 → 지각된 가치)	Path coefficient	0.754	0.428	채택
	Standard error	0.059	0.118	
	<i>t</i> -value	2.736**		
H9b (공공혜택 → 지각된 가치)	Path coefficient	0.121	0.405	채택
	Standard error	0.061	0.111	
	<i>t</i> -value	-2.741**		
H9c (프라이버시위험 → 지각된 가치)	Path coefficient	-0.064	-0.060	기각
	Standard error	0.046	0.055	
	<i>t</i> -value	0.217		
H9d (보안위험 → 지각된 가치)	Path coefficient	-0.050	-0.003	기각
	Standard error	0.052	0.056	
	<i>t</i> -value	1.126		

유의수준) ⁺*p*<0.10, **p*<0.05, ***p*<0.01, ****p*<0.001

채택).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 통제역량의 경우 각각 5%와 10% 유의수준에서 프라이버시 위험과 보안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마이데이터 지식정도는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요인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개인역량(통제역량 및 지식정도) 정도가 높을수록 완화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각된 혜택과 위험 요인들, 그리고 두 조절변수(마이데이터 통제역량 및

지식정도)들은 지각된 가치에 대해 약 72.9%의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지각된 가치는 행동정보 공유의도 및 신체정보 공유의도에 각각 46.5%, 45.6%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기관유형에 따른 영향 메커니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504개 표본 데이터를 공공기관($n=255$)과 민간기관($n=249$)으로 나누어 집단간 비교분석(multi-group analysis: MGA)을 시행하였다. <표 8>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공공기관이 민간기관보다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H9a 채택), 공공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민간기관이 공공기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H9b 채택). 한편, 지각된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H9c, H9d 기각).

6. 결론

6.1. 연구결과 토의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계산모형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용 맥락에서 지각된 혜택 요인(개인혜택, 공공혜택) 및 지각된 위험 요인(프라이버시 위험, 보안위험)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각된 가치 및 마이데이터 제공의도(행동정보 공유의도, 신체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향 메커니즘이 개인의 역량(마이데이터 통제역량, 마이데이터 지식정도)과 기관유형(민간기관 vs. 공공기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마이데이터 공유 시 지각된 혜택은 개인혜택뿐만 아니라 공공혜택도 포함되며, 지각된 혜택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H1, H2 채택).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제공자는 개인혜택뿐만 아니라 공공혜택을 포함한 지각된 혜택을 고려하여 마이데이터 관련 가치를 인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구성할 때 사용자가 지각할 수 있는 개인혜택과 함께 공공혜택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프라이버시 위험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H3 채택), 보안위험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4 기각). 이는, 개인이 마이데이터 제공 시 예상되는 위험 가운데, 프라이버시 위험에 비해 금융 피해를 포함한 재무적인 위험은 직접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판단된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금융 등의 재무적 피해는 프라이버시 유출로 인한 1차 피해 이후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안위험을 직접적인 영향요인 보다는 프라이버시 위험의 후행요인 혹은 매개변수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각된 가치는 행동정보 제공의도와 신체정보 제공의도 모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5, H6 채택). 이는, Laufer and Wolfe(1977)가 제시한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에서 지각된 가치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추가로, 통제변수인 행동정보 민감도와 신체정보 민감도는 행동정보 제공의도와 신체정보 제공의도에 각각 10% 유의확률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역량은 개인혜택, 공공혜택 등 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조절하지는 않지

만(H7a, H7b, H8a, H8b 기각), 지각된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유의하게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7c, H7d, H8c, H8d 채택). 개인역량이 지각된 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조절하지 못한 것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의 경우, 자신이 가진 역량(통제역량 및 지식)에 상관 없이 혜택을 크게 지각하기만 하면 지각된 가치 역시 크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개인역량이 지각된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완화한 것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역량(통제역량 및 지식)이 높을 경우, 프라이버시 위험이나 보안위험을 인지하더라도 본인의 역량으로 사전에 그 위험을 충분히 회피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기관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공공과 민간기관 모두 지각된 공공혜택보다 개인혜택의 가치를 더 크게 인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공공혜택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마이데이터 제공자가 반대급부로 예상하는 혜택의 경우, 공공의 혜택보다는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인혜택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기관이 민간기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H9a 채택, 공공기관 경로계수: 0.754, 민간기관 경로계수: 0.428, t -value: 2.736), 반대로 공공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기관이 공공기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H9b 채택, 공공기관 경로계수: 0.121, 민간기관 경로계수: 0.405, t -value: -2.741). 특히, 공공기관은 공공혜택보다 개인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험을 모두 가지

고 있는 사용자 세 명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뷰 참가자가 인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부24 앱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 두 가지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24는 대한민국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기존 여러 공공기관에서 일일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서 진행했던 행정절차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개편되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은 마이데이터 공유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인 휴대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 응답자들은 이 두 서비스에 대해 기존에 불필요한 업무처리 시간을 줄여주고 개인정보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어 사용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답하였다. 더불어, 응답자들은 공공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에 비해 개인정보 관리가 엄격하므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의 활용범위가 매우 한정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종류가 극히 한정적인 현 시점에서, 설문응답자들이 공공기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공혜택보다는 개인혜택을 좀 더 명확히 인지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기관 서비스의 경우에는 자신이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세 가지 이상(예: 토스, 은행 관련 앱, PASS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설문응답자들이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민간기관 제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공기관 제공 서비스보다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한 결과,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개인혜택(민간기관 경로계수: 0.428)을 넘어 자신이 제공한 마이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관련 신사업이나 시장이 조성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혜택(민간기관 경로계수: 0.405)으로도 그 편익이 돌

아갈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근거에 대한 실증분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제공 주체인 개인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제공 의도 영향 메커니즘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이데이터는 기존 개인정보 공유와는 달리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마이데이터 제공 후에도 데이터의 관리, 이동, 폐기 등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부나 기업이 수집, 관리했던 개인정보 데이터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 이렇듯 데이터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대한 초기 실증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제공시 인지할 수 있는 혜택을 개인혜택, 공공혜택으로 구분하여 이를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프라이버시 계산모형 기반의 기존 연구에서 지각된 혜택은 대부분 개인 관점에서 인지되는 혜택(예: 경제적 혜택, 서비스적 만족감 등)으로 한정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의 지각된 혜택 연구 프레임워크를 개인혜택과 공공혜택의 영역으로 확장하였으며, 지각된 공공혜택이 인지된 가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역량과 기관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추가 분석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미치는 세부 영향 메커니즘을 확인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개인역량이 지각된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마이데이터 수집기관을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 분류한 후, 기관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추가로 실증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민간기관 중심의 마이데이터 수집을 공공기관 개념으로 확장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두 지각된 개인혜택 및 공공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데이터 제공자는 마이데이터의 공공혜택보다 개인혜택을 더 강조해야 한다. 분석결과, 마이데이터 제공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모두 개인혜택을 공공혜택보다 더 큰 가치로 인지하였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홍보는 공공혜택보다 개인혜택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공기관은 공공혜택을 제공했을 때 지각된 가치보다 개인혜택을 제공했을 때 지각된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에 예상되는 개인혜택을 기반으로 홍보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마이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마이데이터 수집기관은 위험관리에 있어 보안위험보다 프라이버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을 프라이버시 위험과 보안위험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프라이버시 위험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보안위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위험을 보안위험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마이데이터 수집기관이나 실무자는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각된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개인역량(마이데이터 통제역량 및 지식정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즉, 고객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지식과 정책에 대한 인지가 높아져 통제역량이 커질수록 지각된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므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홍보 및 정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홍보는 마이데이터 수집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국가적으로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개인정보 관련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예: 데이터3법 개정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기관유형에 따라 개인혜택과 공공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제공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의 경우,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및 교육 등 비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각 서비스 별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더불어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사업이 생성될 수 있다는 비전(공공혜택)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병원에서 진료한 의료기록들을 상급 병원이나 다른 개인병원에서도 개인이 승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으로 의료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경우, 현재는 일부 기관에 한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 부처, 나아가 전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안내서를 제

작하여 국민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6.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대한 개념적 범위가 넓어 설문 응답자마다 인지하는 기관들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범위를 좁혀 좀 더 구체적인 분야(예: 금융, 의료)에 한정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분야별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경우, 산업별 비교연구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가 공공의 이익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혜택과 공공혜택의 다양한 관점(예: 경제성, 활용성)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공공기관의 다양한 마이데이터 활용 성공 사례가 나타날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한 개인 및 공공의 혜택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를 행동정보와 신체정보 제공의도로 각각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지각된 가치가 두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마이데이터의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들 유형 간의 영향 메커니즘의 차이를 추가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관유형별, 마이데이터 유형별, 개인특성별로 맞춤형된 서비스가

많이 출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의 지각적 혜택을 개인혜택에서 공공혜택까지 확장한 기여가 있지만, 지각된 위험 및 비용에 대한 요인은 공공의 개념으로 확장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공공의 비용 또는 위험 요소를 추가 도출하여 본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 및 손해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이데이터 이용자’ 관점을 넘어, 다 같이 살아가며 ‘공동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마이데이터 이용자’ 관점의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1. 강필두, 최인수 (2019).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강화방화**. 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김동성, 김중우, 이홍주, 강만수 (2017). 공공부문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 소상공인 신용보증 데이터 사례. **지식경영연구**, 18(1), 67-81.
3. 김동태 (2013). SNS 태도와 지각된 위험이 소셜커머스 정보확산에 미치는 영향-항공사 소셜미디어 활용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1(2), 85-101.
4. 김영희, 이택현, 김종명, 박원형, 국광호 (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개인정보 위협기반의 트렌드 분석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9(2), 29-38.
5. 김은찬, 김은영, 이효찬, 유병준 (2021). 데이터 3 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국내 금융 및 데이터 산업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8(3), 49-72.
6. 김종기, 김상희 (2012). 스마트폰 위치기반서비스에서 정보제공의도: 프라이버시 계산 관점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연구**, 21(4), 55-79.
7. 김현희, 박광동 (201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8. 류은정 (2002). 인터넷 의류쇼핑몰의 서비스 품질과 구매의도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3), 261-269.
9. 박민정, 채상미 (2017). 빅데이터 환경 형성에 따른 데이터 감시 위험과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지식경영연구**, 18(3), 63-80.
10. 박주석 (2018).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마이데이터의 비교 연구. **한국빅데이터학회지**, 3(1), 41-46.
11. 박준희 (2020). 범죄 빅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과 프라이버시 염려: 정부신뢰의 매개-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9(3), 221-248.
12. 박효주, 양진홍 (2020). 공공영역에서 의료 마이데이터(MyData) 생태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정보전자통신학회 논문지**, 13(6), 511-522.
13. 배재권 (2021).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9(1), 117-132.
14. 백한중, 김지영, 유영민, 신용태 (2019). 지각된 위험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

15. **책경영학회 논문지**, 11(4), 1287-1291.
16. 봉기환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침해요인. **정보보호학회지**, 30(5), 121-126.
17. 소현정, 광기영 (2021). 모바일 헬스 앱 사용의도 동기요인: 조절초점성향과 프라이버시계산이론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2(2), 33-53.
18. 송미정, 김인석 (2019). 유럽 PSD2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연구.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29(5), 1205-1219.
19. 양병화 (2022). 대학생의 성격특질과 모바일 쇼핑의도의 관계: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13(2), 201-214.
20. 오현택, 양진홍 (2020). 마이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의 전자건강/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거래모델. **한국정보전자통신학회 논문지**, 13(3), 250-261.
21. 유정아, 조창환 (2022). 개인화 광고를 위한 유저의 앱 추적 허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 연구: 프라이버시 계산 모델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33(6), 7-30.
22. 윤수영, 여정성 (2018).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9(3), 17-38.
23. 이기호 (2021).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및 보건의복지 분야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1(301), 52-68.
24. 이애리, 김범수, 장재영 (2016).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위험 분석 프레임워크. **한국IT서비스학회지**, 15(4), 41-62.
25. 이은의, 김성진 (2014).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험이 서비스 신뢰 형성에 주는 영향과 기업의 위기대응전략: 금융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2(6), 111-123.
26. 이은지, 김혜민, 김진영, 구철모 (2021). 코로나 19 상황에서 외식업장에서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연구: 프라이버시 계산이론 및 제도이론의 통합적 적용. **관광학연구**, 45(7), 123-147.
27. 이종섭, 최재섭, 최정일 (2022). 오픈뱅킹 기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21(1), 1-19.
28. 이한석 (2016). 중국 소비자의 클라우드 펀딩 참여에 있어 지각된 위험, 지각된 이익, 한류문화콘텐츠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1), 204-213.
29. 이환수, 임동원, 조항정 (2013).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과잉이 사용자 저항에 미치는 영향. **지능정보연구**, 19(1), 125-139.

29. 정해진, 이진혁 (2022).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태도와 보호의도에 관한 연구: 프라이버시 냉소주의의 영향. **정보화정책**, 29(2), 37-65.
30. 최인호, 정세훈 (2019). 연령, 소득 및 디지털 리터러시가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및 보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3(5), 233-266.
31. 최정민, 조영은 (2020).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 **경제규제외법**, 13(2), 92-107.
32. 하혜림, 정유경 (2017). 이용동기와 정보기술수용모델기반 O2O 앱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집**, 81, 306-309.
- [국외 문헌]
33. Bagozzi, R. P., Yi, Y., & Phillips, L. W. (1991). Assessing construct validity in organizational resear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6(3), 421-458.
34. Brown, S. A., & Venkatesh, V. (2005). Model of adoption of technology in households: A baseline model test and extension incorporating household life cycle. **MIS Quarterly**, 29(3), 399-426.
35. Dinev, T., & Hart, P. (2006). An extended privacy calculus model for e-commerce transaction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7(1), 61-80.
36. Dowling, G. R., & Staelin, R. (1994). A model of perceived risk and intended risk-handling activ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1(1), 119-134.
37.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82-388.
38. Forsythe, S., Liu, C., Shannon, D., & Gardner, L. C. (2006).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the perceived benefits and risks of online shopping.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20(2), 55-75.
39. Gold, A. H., Malhotra, A., & Segars, A. H. (2001). Knowledge management: An organizational capabilities perspective.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8(1), 185-214.
40. Gomez-Barroso, J. L., Feijoo, C., & Martinez-Martinez, I. J. (2018). Privacy calculus: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ception of benefit. **El Profesional de la Informacion (EPI)**, 27(2), 341-348.
41. Guo, J., Li, N., Wu, Y., & Cui, T. (2020). Examining help requests on social networking sites: Integrating privacy perception and privacy calculus perspectives.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39, 100828.
42. Gutman, J. (1982). A means-end chain model based on consumer categorization processes. **Journal of Marketing**, 46(2), 60-72.
43. Hann, I. H., Hui, K. L., Lee, T., & Png, I. (2002). Online information privacy: Measuring the cost-benefit trade-off.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ICIS 2002)**, Barcelona, Spain.
44. Henseler, J., Ringle, C. M., & Sarstedt, M. (2015). A new criterion for assessing discriminant validity in 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3(1), 115-135.
45. Homans, G. C., & Burlingame, N. Y. (1961).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46. Ioannou, A., Tussyadiah, I., & Lu, Y. (2020). Privacy concerns and disclosure of biometric and behavioral data for travel.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54, 102122.
47. Laufer, R. S., & Wolfe, M. (1977). Privacy as a concept and a social issue: A multidimensional developmental theory. **Journal of Social Issues**, 33(3), 22-42.
48. Lwin, M., Wirtz, J., & Williams, J. D. (2007). Consumer online privacy concerns and responses: A power-responsibility equilibrium perspectiv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5(4), 572-585.
49. Malhotra, N. K., Kim, S. S., & Agarwal, J. (2004). 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IUIPC): The construct, the scale, and a causal mode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5(4), 336-355.
50. Mohammed, Z. A., & Tejay, G. P. (2021). Examining the privacy paradox through individuals' neural disposition in e-commerce: An exploratory neuroimaging study. **Computers & Security**, 104, 102201.

51.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logical theory*. New York: McGraw-Hill.
52. Trepte, S., Scharnow, M., & Dienlin, T. (2020). The privacy calculus contextualized: The influence of affordanc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04*, 106115.
53. Vroom, V. H. (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John Willey & Sons Inc.
54. Zeithaml, V. A. (1988).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A means-end model and synthesis of evidence. *Journal of Marketing, 52*(3), 2-22.
63. Statista. (2022). *Volume of data/information created, captured, copied, and consumed worldwide from 2010 to 2020*.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871513/worldwide-data-created/>

[URL]

55.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1차 회의**.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105133>
56.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 **공공분야 지능형 서비스로 '국민 편익' 높인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7535>
57. 데이터넷 (2022). **국민 4명 중 1명, '마이데이터' 서비스 몰라**. <https://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857>
58. 서울경제TV (2022). **마이데이터란 무엇인가**. <https://www.sentv.co.kr/sendoc/view/613203>
59.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https://dataonair.or.kr/%EB%A7%88%EC%9D%B4%EB%8D%B0%EC%9D%B4%ED%84%B0-%EC%84%9C%EB%B9%84%EC%8A%A4-%EC%95%88%EB%82%B4%EC%84%9C/>
60.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http://www.kisa.or.kr/uploadfile/201702/201702030959532700.pdf>
61. Gartner. (2020). *Gartner says by 2023, 65%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have its personal data covered under modern privacy regulations*. <https://www.gartner.com/en/newsroom/press-releases/2020-09-14-gartner-says-by-2023--65--of-the-world-s-population-w>
62.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1). **마이데이터 국내외 현황 및 주요 해외 사례**. https://rd.kdb.co.kr/FLSRIA02N01.act?_mnuid=FYERER0017#_init__

부록: 설문문항

측정개념	변수	측정문항	참고문헌
개인혜택	IB1	마이데이터 제공은 나에게 혜택이 될 것이다.	하혜림, 정유경 (2017)
	IB2	마이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IB3	마이데이터 제공은 나에게 유용할 것이다.	
	IB4	마이데이터 제공은 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공공혜택	PB1	마이데이터 제공은 사회 전체의 혜택이 될 것이다.	하혜림, 정유경 (2017)
	PB2	마이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PB3	마이데이터 제공은 공익에 유용할 것이다.	
	PB4	마이데이터 제공은 사회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프라이버시 위험	PR1	마이데이터 제공은 사생활 추적이 가능성이 있다.	이애리 등 (2016)
	PR2	마이데이터 제공은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노출 가능성이 있다.	
	PR3	제공된 마이데이터의 노출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보안위험	SR1	마이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SR2	마이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금전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다.	
	SR3	마이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신용카드 정보나 계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SR4	마이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금액이 청구될 우려가 있다.	
지각된 가치	PV1	마이데이터 제공은 예상되는 위험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준다.	Dinev and Hart(2006)
	PV2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좋은 가치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PV3	마이데이터 제공은 예상되는 불안요소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마이데이터 통제역량	CT1	나는 제공한 마이데이터에 대해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수영, 여정성 (2018)
	CT2	나는 제공한 마이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CT3	나는 제공한 마이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CT4	나는 제공한 마이데이터가 유출되면 이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능력이 있다.	
마이데이터 지식정도	KL1	나는 제공한 마이데이터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Lwin et al. (2007)
	KL2	나는 제공한 마이데이터에 대한 해당 '기관' 의 개인정보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KL3	나는 제공한 마이데이터에 대한 '정부' 의 개인정보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KL4	나는 제공한 마이데이터를 '기관' 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행동정보 공유의도	BI1	나는 행동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	Ioannou et al. (2020)
	BI2	나는 나의 행동 패턴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BI3	나는 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BI4	나는 지속적으로 행동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신체정보 공유의도	PI1	나는 신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	Ioannou et al. (2020)
	PI2	나는 나의 신체적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PI3	나는 나의 신체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PI4	나는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행동정보 민감도	BS1	나는 신상관련 개인정보(예: 취미, 개인적 선호)를 공유하는 것에 민감하다.	Ioannou et al. (2020)
	BS2	나는 수집되는 개인정보(예: 스마트폰 검색기록, 활동 센서 등)를 공유하는 것에 민감하다.	
	BS3	나는 금융관련 개인정보(예: 개인금융 정보, 구체적 지불내역 등)를 공유하는 것에 민감하다.	
신체정보 민감도	PS1	나는 생체관련 개인정보(예: 지문, 목소리, 얼굴 이미지, 홍채)를 공유하는 것에 민감하다.	Ioannou et al. (2020)
	PS2	나는 의료관련 개인정보(예: 의료,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민감하다.	
	PS3	나는 신체관련 개인정보(예: 건강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민감하다.	

● 저 자 소 개 ●

박 동 근 (Dong Keun Park)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서 빅데이터경영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마이데이터, 스타트업, 스마트관광 등이다.

양 성 병 (Sung-Byung Yang)



KAIST에서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성대학교 경영학부, 아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를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마이데이터,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리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스마트관광 등이다.

윤 상 혁 (Sang-Hyeak Yoon)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인공지능,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등이다.

〈 Abstract 〉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s Intention to Provide MyData: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Type

Dong Keun Park^{*}, Sung-Byung Yang^{**}, Sang-Hyeak Yoon^{***}

Recently, the MyData market has been growing as the importance of data and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ve drawn much attention together. MyData refers to the concept of guaranteeing an individual's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ing and utilizing one's data according to individual consent. MyData service providers can combine and analyze customer information to provide personalized services. In the early days, the MyData business was activated mainly by private companies and the financial industry, but recently, public institutions are also actively taking advantage of MyData. Meanwhile, the importance of an individual's intention to provide MyData for the success of MyData businesses continues to increase, but research related to this is lacking. Moreover, existing studies have been mainly conducted on individual benefits of MyData; there are not enough studies in which both public benefit and perceived risk factors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deriv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provide MyData based on the privacy calculus model, examine their influencing mechanism, and further ver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type. This study can find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expanded and demonstrated the privacy calculus model in the context of MyData providing inten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offer practical guidelines for developing and managing new services in MyData businesses.

Key words: MyData, Intention to provide MyData, Perceived value, Individual capabilities, Institutional type, Privacy calculus model

* Kyung Hee University

** Kyung Hee University

*** KOREATECH